

담양 대나무박람회

홍보관 28일 개관

영산강문화공원관리사 신축

1층에 정보센터 등 들어서

담양군은 오는 28일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홍보관을 개관한다.

군은 죽녹원 앞 담양 종합체육관 입구에 지하 1층·지상 1층(연면적 483.14㎡) 규모의 영산강문화공원 관리사를 건립했다.

관리사 1층은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관과 관광정보 센터, 북 쉼터가, 지하는 건물 운영을 위한 기계실과 전기실 등이 들어선다.

박람회 홍보관은 내년 열리는 세계 대나무 박람회 개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박람회 EI(Event Identity) 소개와 함께 박람회 3대 특징, 박람회장 구성, 50일간 희망 등의 설명패널을 부착해 박람회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박람회 이모저모와 박람회 경험하기 미디어테이블, 레이저 조각기로 대侗에 글쓰기 코너 등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관광정보센터에는 ▲담양 1000년 역사를 알 수 있는 담양 변천사(지도·사진) ▲담양 떠나보기 미디어 테이블(10경·10미·문화유산 등) ▲대나무 2420ha의 가치 등을 소개하는 클래스페널 등을 설치했다.

또한 현재 제작중인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도 박람회 전까지 설치해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오르간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담양군은 2015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죽녹원 일원에서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세계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다.

/답=정재근기자 jjg@kwanju.co.kr



운동은 걷기가 최고

강진군 보건소 주관의 '닐리리만(萬)보 건강걷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주민들이 농로를 걷고 있다. 군 보건소는 하체 균형이 악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틱을 이용한 걷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성 할머니장터 “시골 인심 푸짐해요”

매월 0·3·5·8일로 끝나는 날 개설…버스터미널 인근

“0, 3, 5, 8일로 끝나는 날에는 장성 할머니장터로 오세요.”

장성군 ‘시골 할머니장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으로 붐비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정겨운 담소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장성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시골 할머니장터’(이하 할머니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할머니들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지난 10일 개장했다.

이곳에선 고령의 할머니들이 직접 덧밭에서 일군 채소류 등을 한가득 갖고 와서 판다.

미나리와 상추, 쑥, 약초뿌리 등 각종 나물과 채소를 비롯해 옥수수차, 깻가루 등 가공품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장터인 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는다. 가격을 흥정하는 낯익은 풍경도 쉽게 볼 수 있다.

할머니들의 호응 또한 좋다.

장터 한 곳에 자리 잡은 박종효(80) 할아버지는 “목돈은 안 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 장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 장터’는 다른 재래시장이 열리는 날을 피해 월 12회(0, 3, 5, 8일로 끝나는 날)만 문을 연다.

군은 반응이 좋은 만큼 올해부터

는 운영 시간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연장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할머니 장터’에 오면 신선한 채소를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후한 인심도 느낄 수 있다”며 “좋은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역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전북

순창 군립도서관 7월 개관…북카페 등 독서문화 확산 기대

편백나무 자료실·학습실 등

내달까지 희망·기증도서 접수

순창군립 도서관이 오는 7월 문을 연다.

순창군은 총사업비 36억을 투입해 순창읍내에 지상 2층(연면적 1247㎡) 규모의 순창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

군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도서 구입과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군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서관 1층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고려해 ‘피톤치드’를 생성하는 자연친화적인 편백나무로 어린이 자료실을 만들고, 북 카페와 임·

농·죽산업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코너가 포함된 종합 자료실이 들어선다.

또 2층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체험 교육실과 수험생들을 위한 학습실, 아늑한 분위기의 ‘책 읽는 방’ 등을 갖춘다.

이와 함께 군은 개관에 맞춰 2억 2000만원을 들여 1만6000권의 장서를 구입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과 청·장년층, 어린이, 유아는 물론 장애인, 다문화 가정, 임·농·죽산업인을 위한 특성화 도서를 두루 갖출 계획이다.

군은 지역 인구분포 등을 분석해 연간 신간도서 확충 등 장기적인 장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군립도서관 개관에 앞서



순창 군립도서관 전경.

군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다양하고 폭넓은 장서를 구축하기 위해 희망 및 기증도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받는다.

구입이나 기증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군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나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063-650-1636) /순창=이동희기자 dhee@

순창읍 복실리 석실고분 “백제시대였네”

백제양식 벽면돌 발견

오래전 도굴 흔적·훼손

순창은 복실리 석실고분이 최근 실시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백제시대 석실 고분으로 밝혀졌다.

국립 나주 문화재연구소 이규훈 학예연구실장 등 조사자들은 고분의 형태와 축조 시기 등을 조사한 결과 백제시대 석실 고분이라고 결론지었다.

분묘는 가로 1.5m, 세로 2.6m, 높이 1.4m 정도 규모로 작은 구멍을 통해 밖과 연결돼 있다. 또 벽면은 큰 바위와 작은 돌, 자갈로 차곡차곡 쌓여 있고, 천정은 넓고 큰 바위를 앉았다.

주변에 고분이 무너져 생긴 듯한 돌무더기도 여러 군데 발견돼 원래는



고분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 나주 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은 ‘벽면 돌은 사각형으로 모서리를 다듬은 것처럼 보이며, 형태로 보아 가야시대보다는 백제시대 석실고분으로 여겨진다’며 ‘오래전에 도굴된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 공동묘지가 조성되면서 원형이 이미 많이 훼손돼 발굴조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문화유적 안내판 설치 등 보존조치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ee@

호남고속철 정읍구간 지하차도 5곳 개통

교통환경 개선·상권활성 기대

호남고속철도 정읍시 구간의 동서 연결 지하차도가 속속 개통되면서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읍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동서를 연결하는 고가교를 철거한 후 상평과 천연·정읍역·정주·농흥·농소 지하차도 등 7개소(총연장 2.4km)의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시작해 오는 2015년 완료되는 이번 사업에는 612억 9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연지와 올 1월 농흥이 완공된데 이어 최근 농

소, 정주, 천연 지하차도 등 총 5개소의 지하차도가 개통됐다”고 23일 밝혔다. 정주 지하차도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됐고, 천연 지하차도 역시 통과 높이를 3.9m에서 4.5m로 높였다.

시는 나머지 상평 지하차도와 역사 후면까지 구조물 설치를 끝낸 정읍역 지하차도는 오는 11월과 내년 6월 개통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소와 연지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교통체증 완화 등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일대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정읍 선상역사 신축공사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읍=박기선피자 parkks@

화순 수만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선정

환경부 전국 10개마을 지원

운데 10개 마을을 지원대상 마을(기간 3년)로 선정했다.

수만(들국화) 마을은 앞으로는 만연산, 뒤로는 무등산과 안양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철쭉군락 등 경관이 우수한 산촌마을이다.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잘 보전돼 있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우수하게 복원한 마을을 적극 발굴·홍보해 국민들의 보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01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전국 103개 생태마을을 가

장흥고염제전우회 학폭예방 MOU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봉수)

과 장흥경찰서(서장 박병동), 고염제전우회 장흥지회(지회장 윤자정)는 최근 장흥 안보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윤자정 장흥군수는 “요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에 알리고, 지역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학교폭력’으로서 어느 곳이든 서슴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마친 후 고염제전우회 회원들은 학교 폭력예방 가두 캠페인과 함께 단진천 정화 활동을 벌였다. /장흥=김용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단신

정읍경찰서·다문화센터, ‘외국인 도움센터’ 간담회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와 정읍시 다문화센터(센터장 오은도·이하 다문화센터)는 최근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도움센터는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도움센터는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박기선피자 parkks@

순창군 시설원예 연작지 토양 소독 추진

순창군이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5년 이상된 시설원예 연작지 토양을 대상으로 소독사업을 추진한다.

대부분 시설재배 토양의 경우 수년간씩 단일품목을 연작함에 따라 토양선충 등 병해충 밀도 증가로 수량과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순창군은 32㏊(상주 21㏊, 쌈채소 11㏊)에서 연간 125t의 업체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은 32㏊(상주 21㏊, 쌈채소 11㏊)에서 연간 125t의 업체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ee@

고창군, 2014 민원모니터 요원 14명 위촉

고창군은 23일 14개 읍·면 이장협의회장을 2014년 민원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유양종, 이상범, 강택희, 박재경, 최경연, 흥민표, 이영성, 정석환, 소광호, 박동석, 이기환, 이재현, 강성원, 신연수 등 14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부안읍 고마저수지 ‘농촌테마공원’ 농림부 사업 선정

부안읍 고마저수지 일대를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인 만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